

임 동 현

Dong Hyeon Lim

P O R T F O L I O

2022 - 2025

CV

임동현 (1999, 서울 거주)

Tel : + 82 1 7327 3637

E - mail : tecuhn@gmail.com

Instagram : @limeastring

Youtube : @DongHyeon Lim

Web : limdonghyeon.com

학력

2024 경희대학교 조소과 학사 졸업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재학

전시

2023 <Defamiliarization>,헬로우 뮤지움, 서울, 한국
 <금이 간 계란과 잘 꼬인 바줄>, 피어 컨템포러리, 서울, 한국

2024 <지구를 구하는 멋진 이야기들>, 경포 해변, 강릉, 한국
 <Your Office 2024>, 아트스페이스 아름, 수원, 한국

2025 <Resonant Chamber>, 공간형, 을지로, 서울

사물은 정지된 객체가 아니라 매순간 고유한 진동과 움직임을 발생시키며, 그 움직임은 물리적 충돌 뿐 아니라 비가시적·비가청적 신호로 작동하는 사물 간의 대화로 구성된다.

이러한 대화와 움직임을 감지하고 소리로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 제작한 사물들은 서로의 움직임에 반응하여 ‘스스로 연주하는 악기’로 기능한다. 각각의 악기는 특정한 감지 조건에 반응해 구동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소리는 또 다른 악기를 작동시키는 연쇄 작용을 통해 청각적 풍경, 혹은 현장의 음악을 생성한다.

청각 중심의 제안은 감각을 수평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실천이다. 감각은 현실을 구성하는 조건이며, 즉각적인 연주와 반응은 현재의 사건을 마주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관람자는 하나의 서사나 이미지로 귀결되는 경험이 아닌 청각각의 구조 속에서 대상을 감각하는 방식에 도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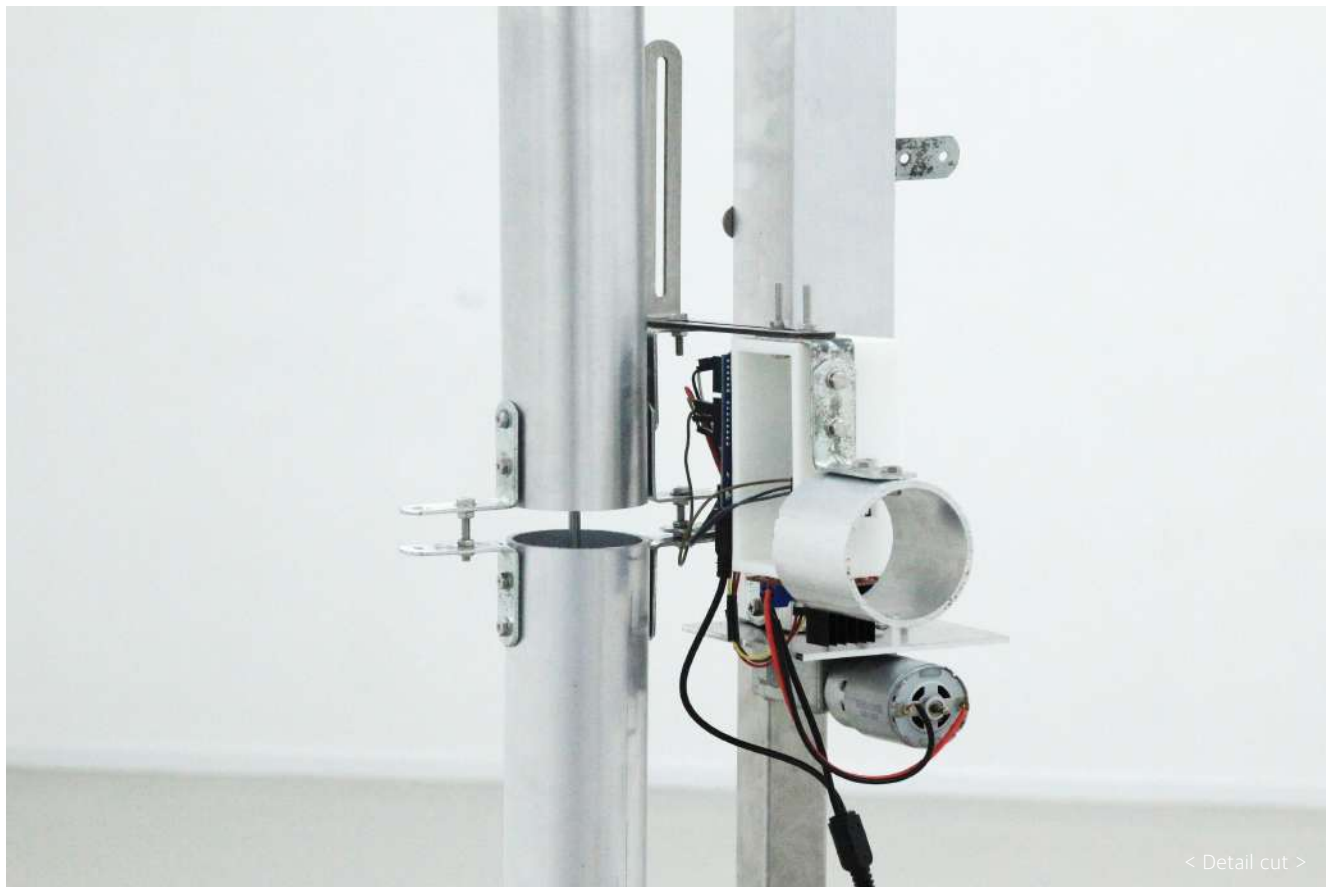
Instrument For Satellite
2025, 알루미늄, 사운드 센서, 모터, 200x50x50cm



< Detail cut >



Instrument For Wheels
2025, 알루미늄, 모션센서, 모터, 200x50x50cm



< Detail cut >



Instruments For Line
2025, 알루미늄, 사운드 센서, 모터, 와이어, 50x220x20cm



< Detail cut >



Resonant Cha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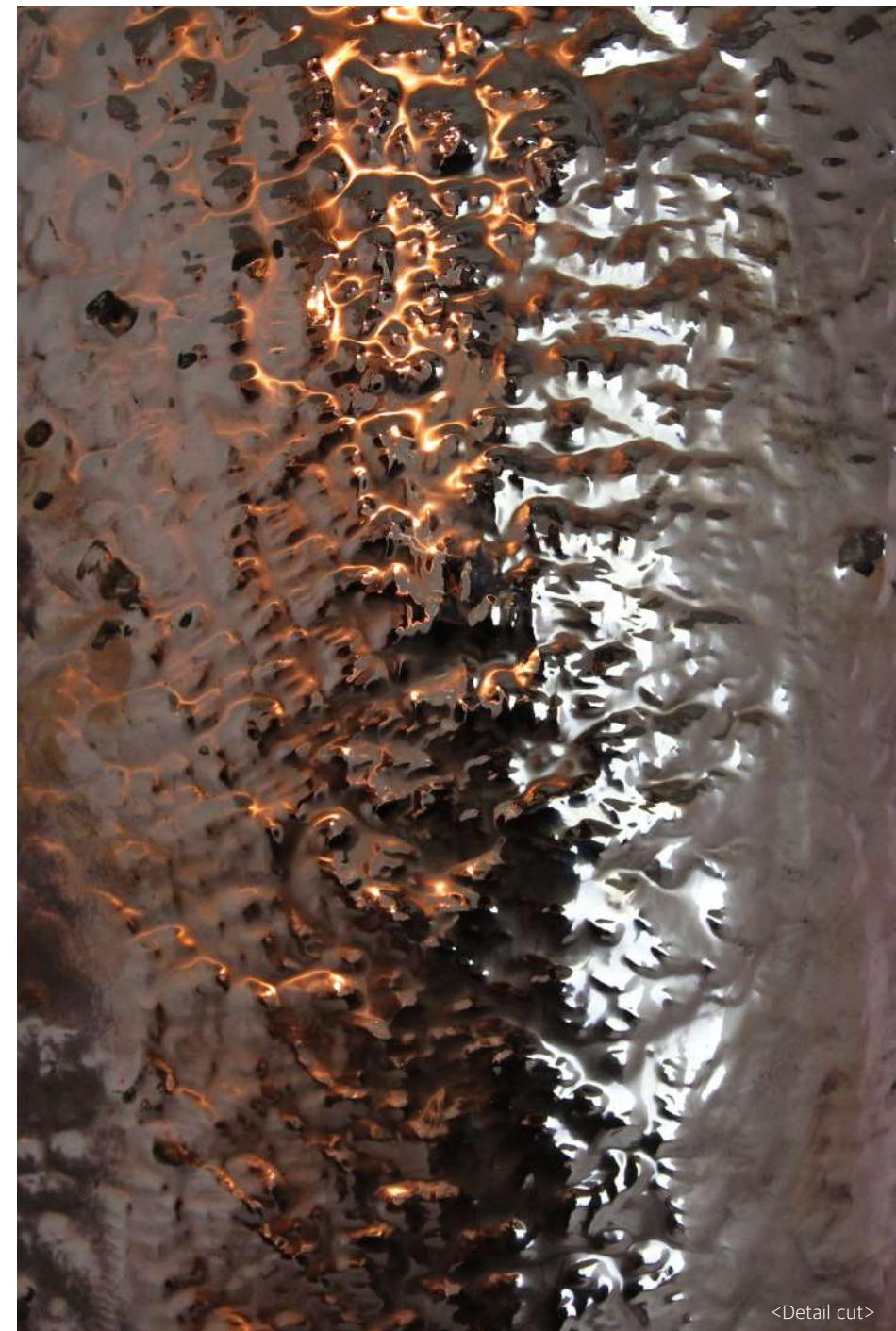
공간형 ,을지로, 서울
2025, 설치전경

... 임동현은 일상에서 발견한 소리의 특징, 이를테면, 소리가 가진 질감과 형상 등을 추적하여 새로운 청각 경험으로 변환한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오브제는 단순한 소리의 기록이 아니라, 새로운 소리를 생성하는 악기로서 감각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인터페이스를 구축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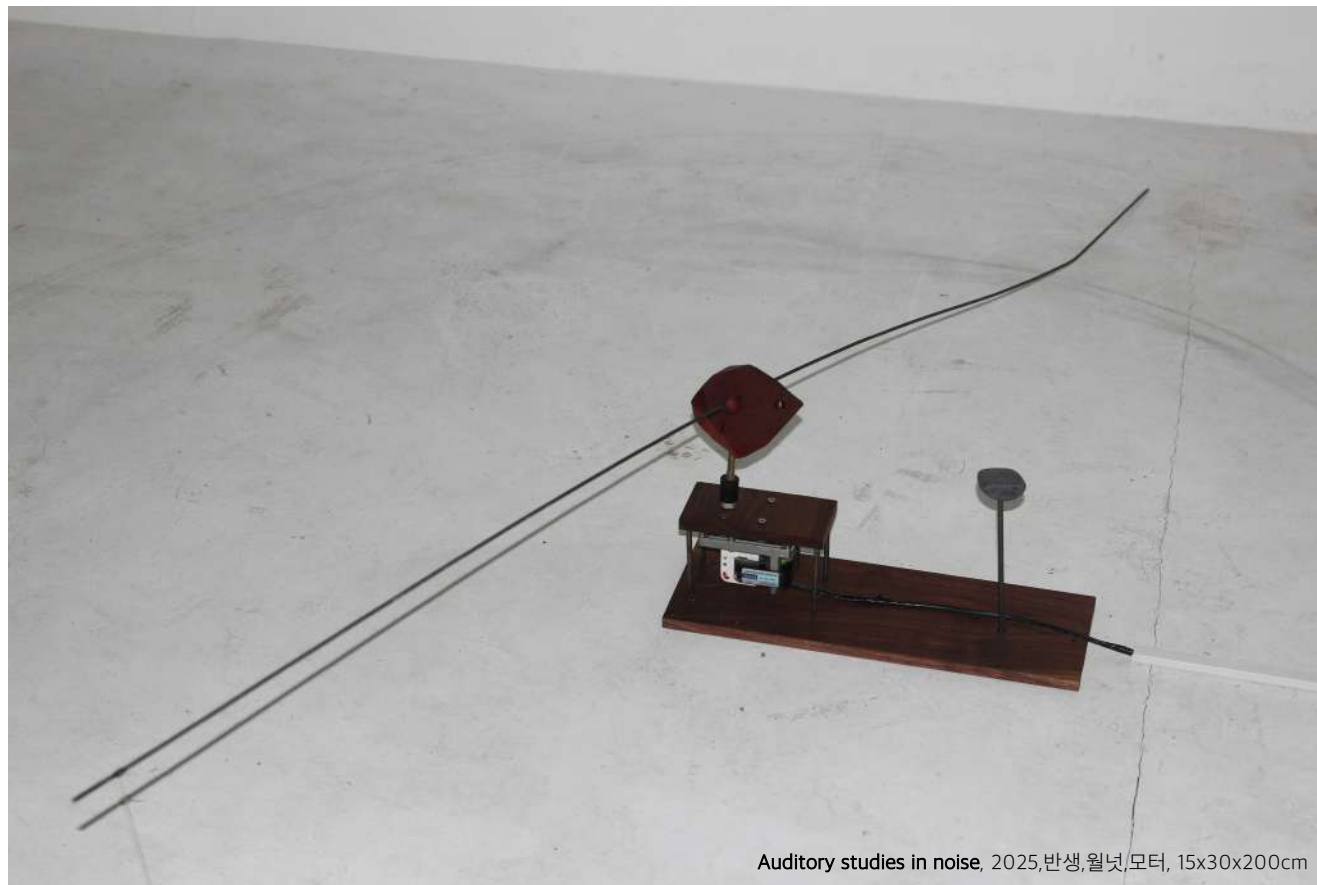
전시 서문 중



Gong, 2025, 동판, 모터, 채, 아두이노, 200x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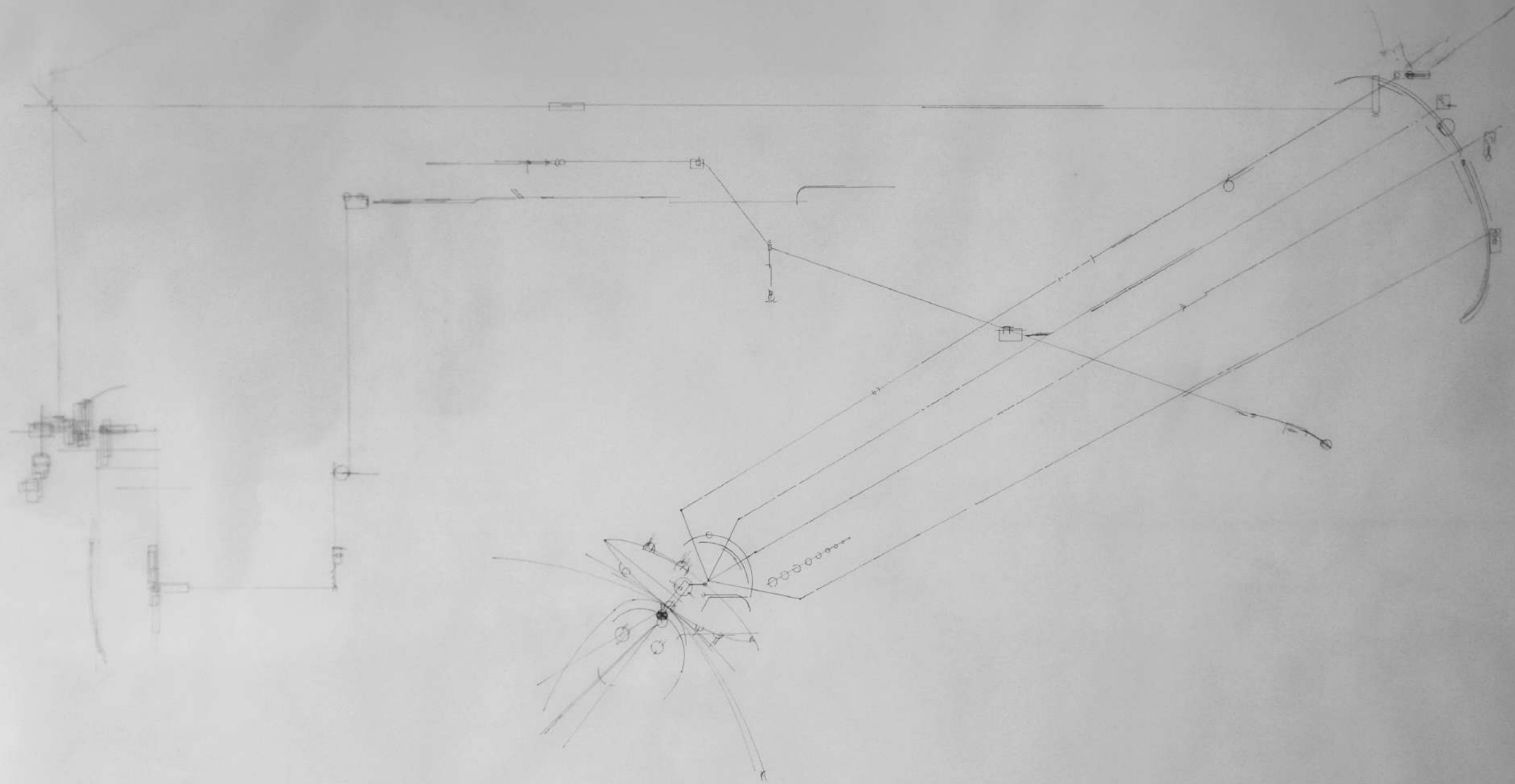
<Detail c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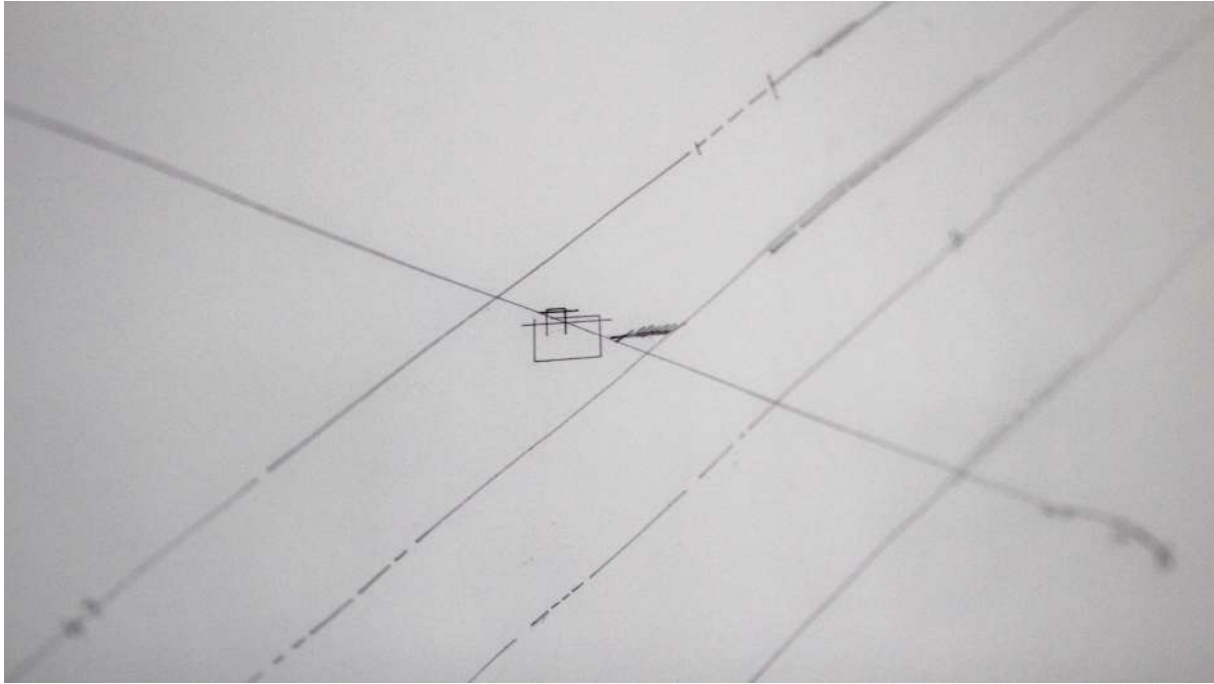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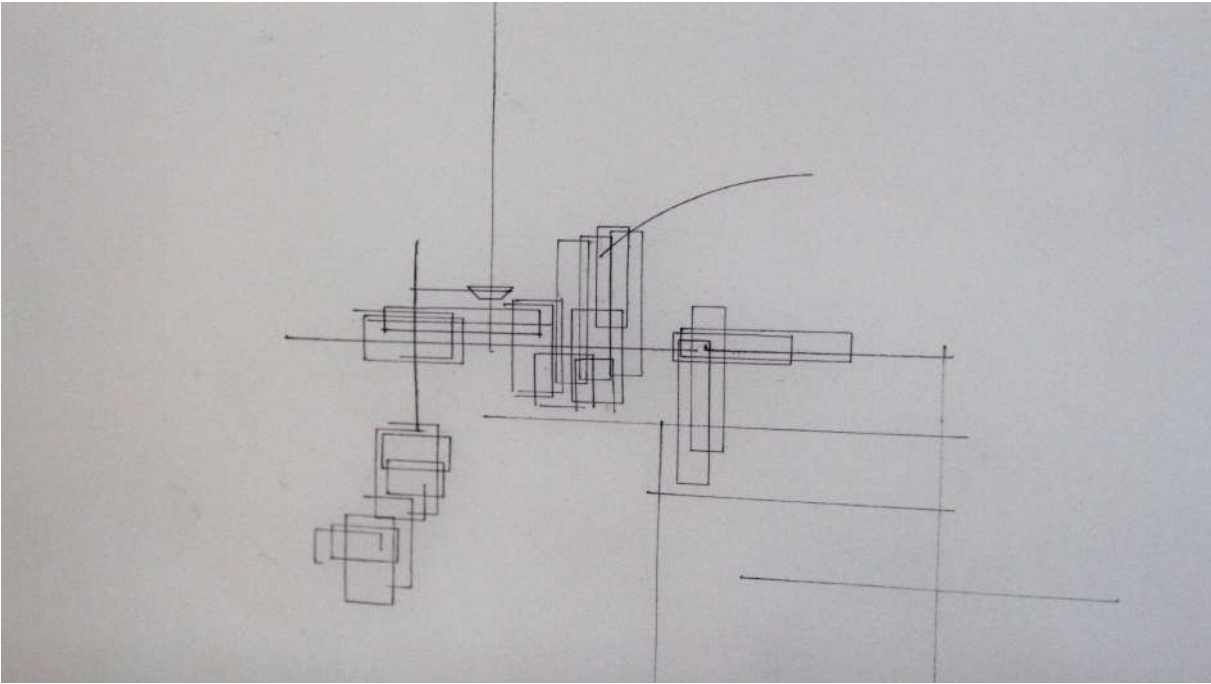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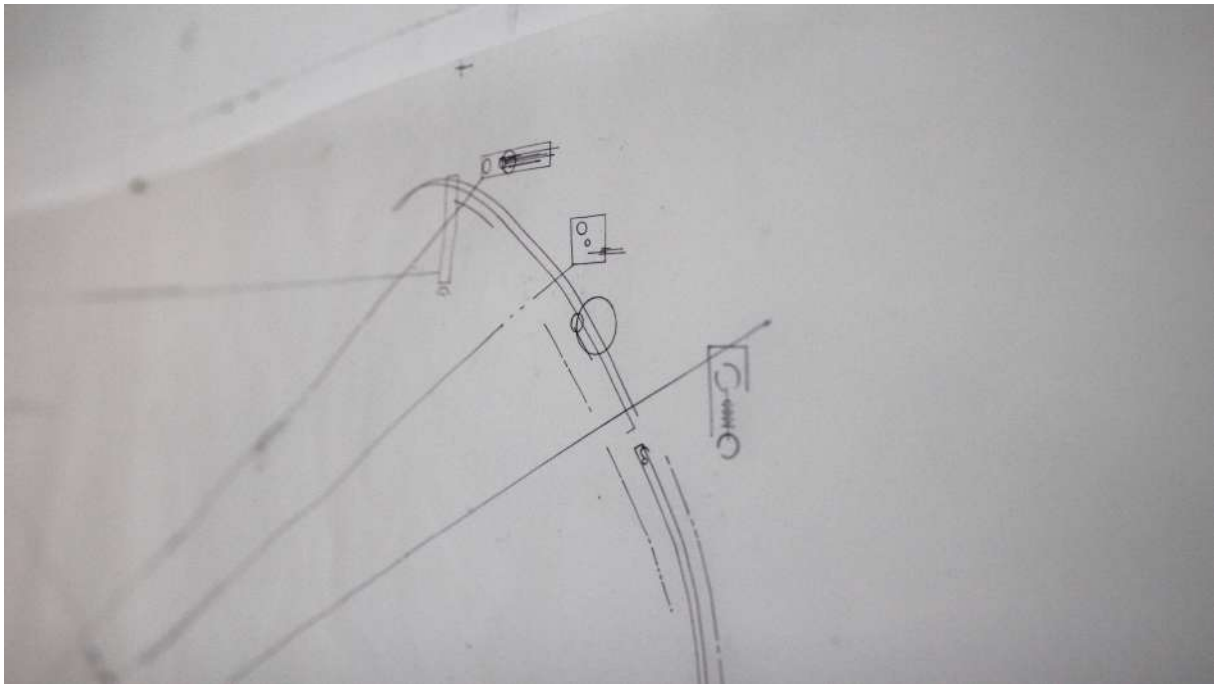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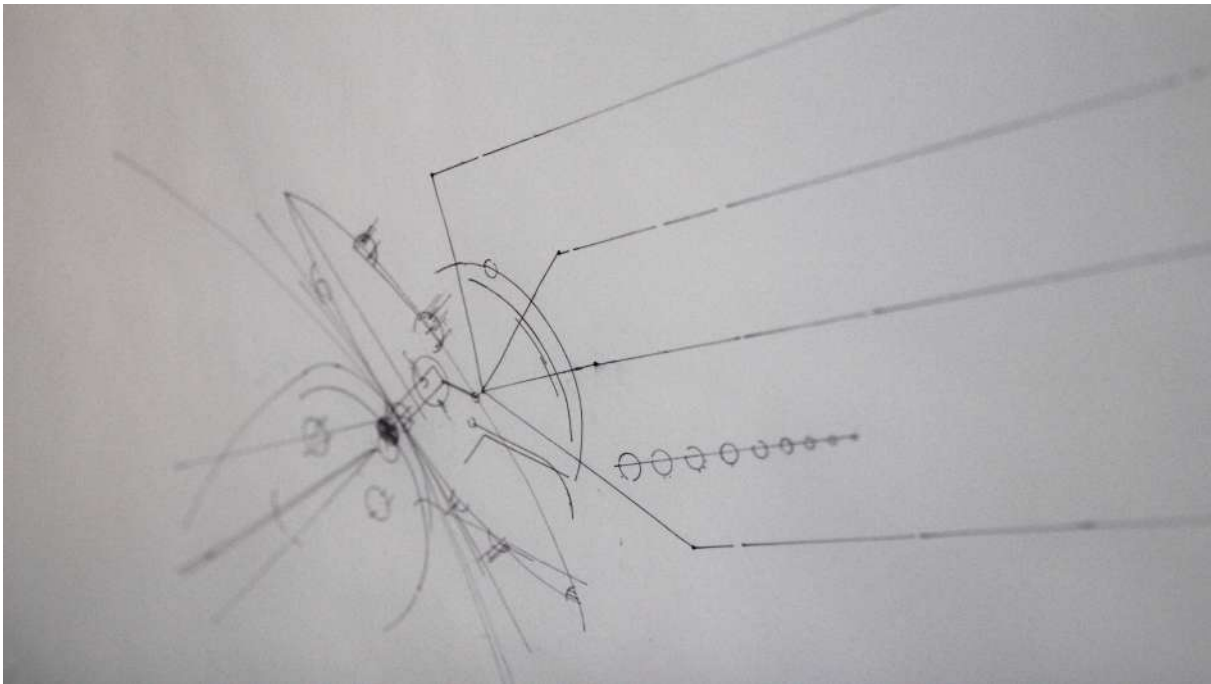


Auditory studies in noise, 2025, 반생, 월넛, 모터, 15x30x200cm



<Detail cut>







Prelude in "monsoon season"

2024, 설치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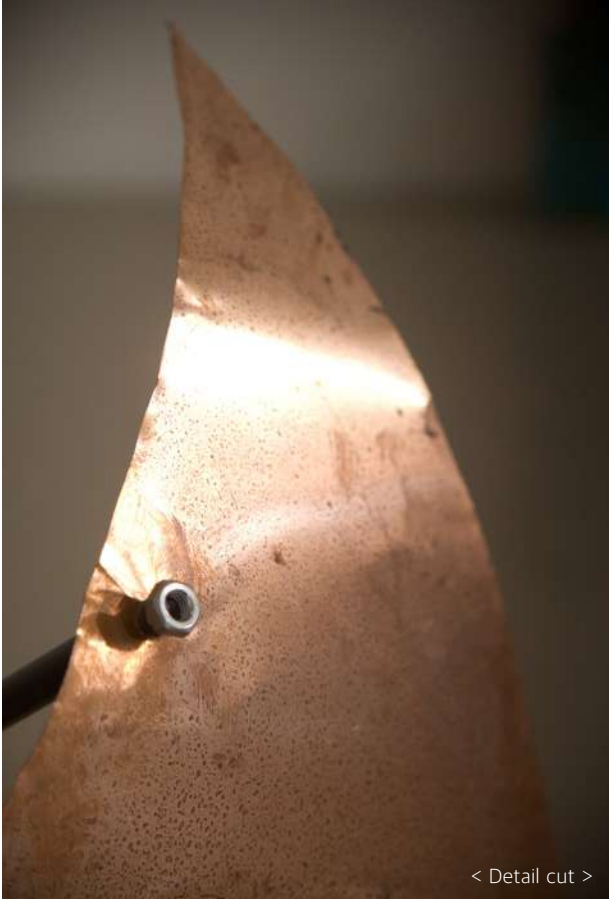
동판에 기록된 수많은 타점의 흔적은, 그의 청각적 경험 중 장마 기간에 들었던 빗소리에서 기인했다.
빗방울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소리를 과연 기록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동시다발적,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빗소리를 한 장면의 악보로서 구성하는 의도를 가진다.



< Detail cut >

Treble Clef

2024, 동판, 동봉, 가변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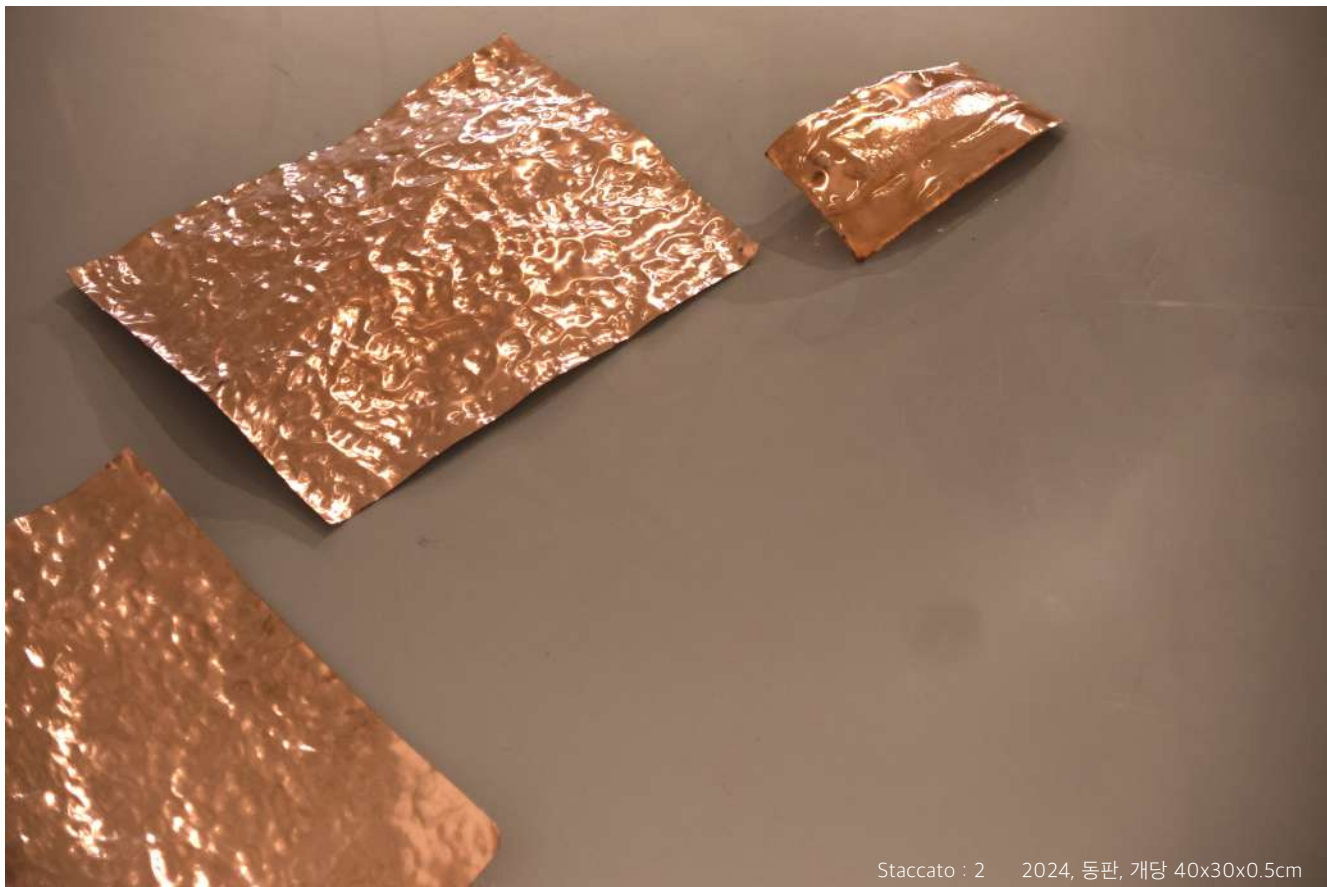




어떤 한 방울이 스쳐지나 가는 것은
2024, 동판, 동봉, 원목, 가변설치



< Detail cut >



Staccato : 2 2024, 동판, 개당 40x30x0.5cm



그것을 듣지 못하는 사이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2024, 동판, 60x58cm







Bass Clef 2024, 동판, 동봉, 33x20x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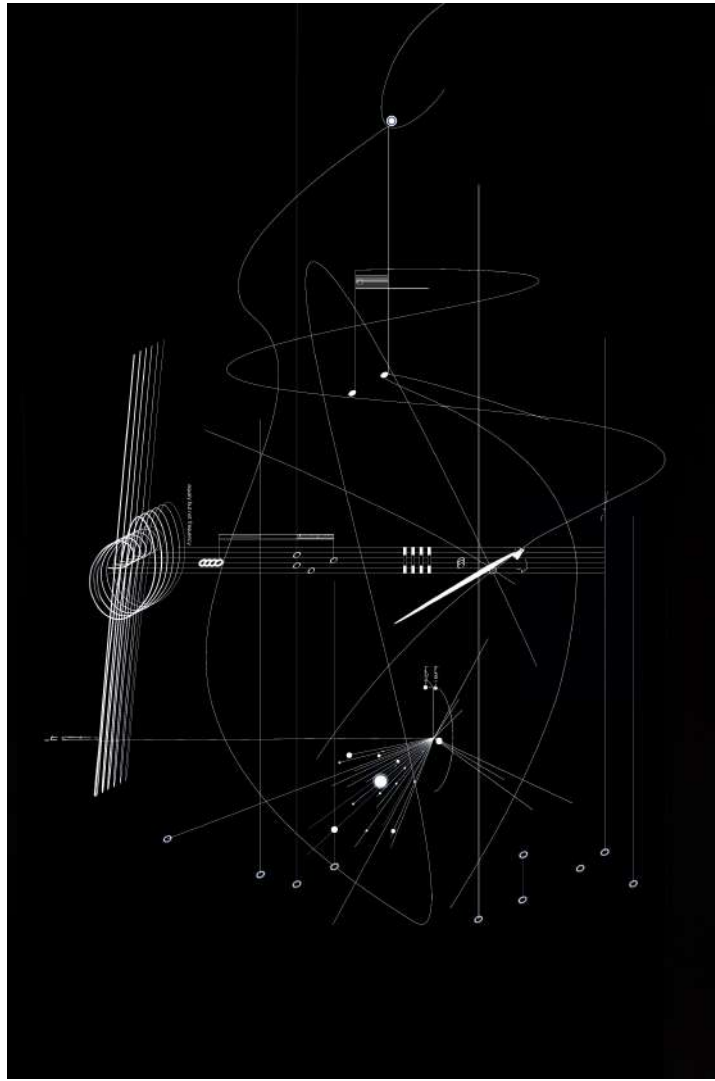
Stacato 2024, 동판, 40x3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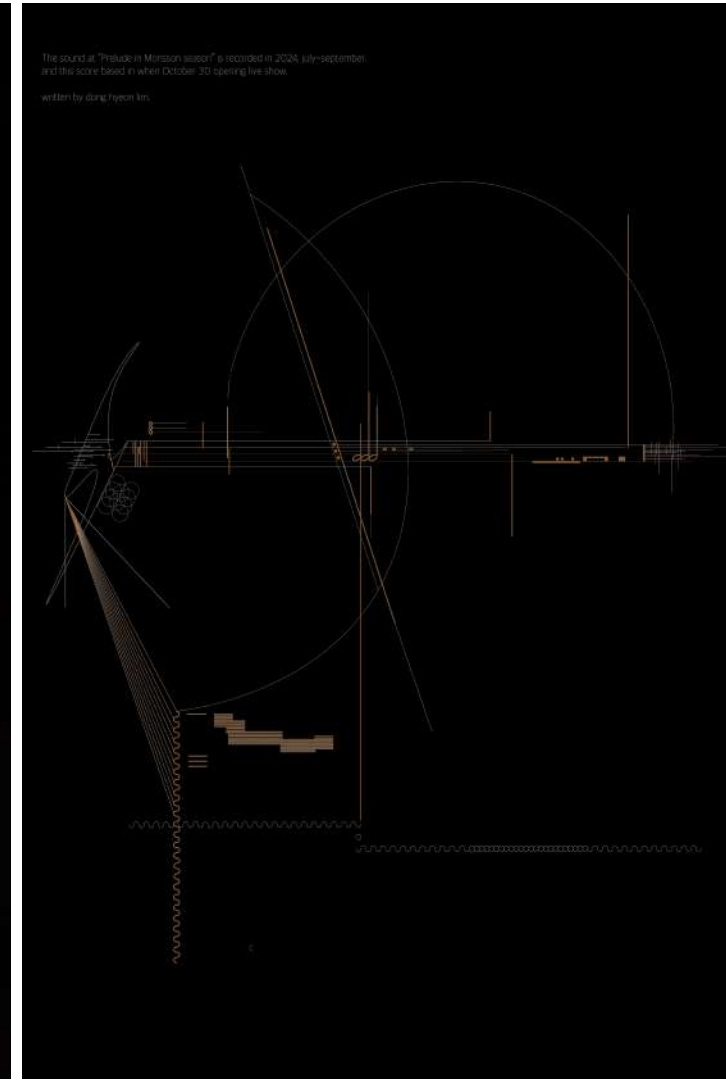
Time signature 2024, 동판, 동봉 90x70x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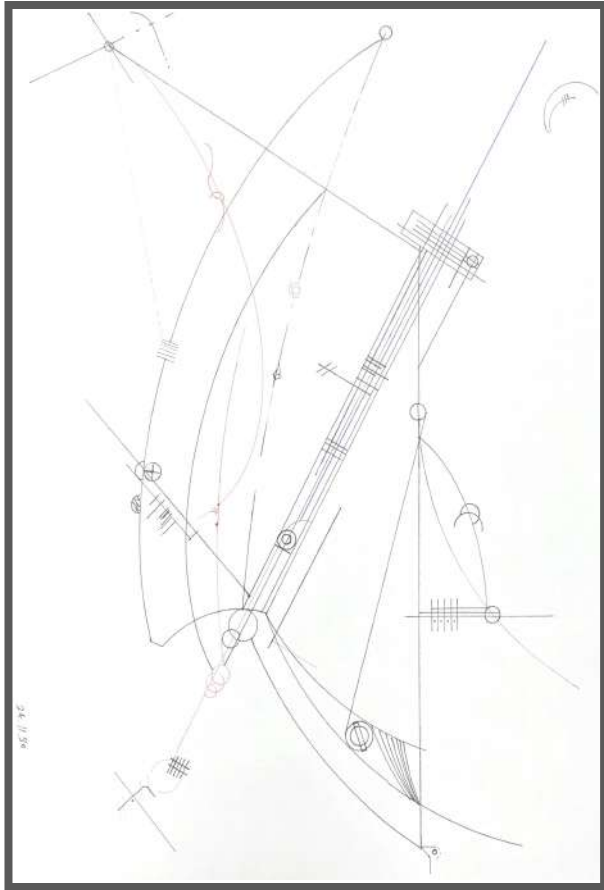
Repeats 2024, 동판, 동봉, 원목, 60x200x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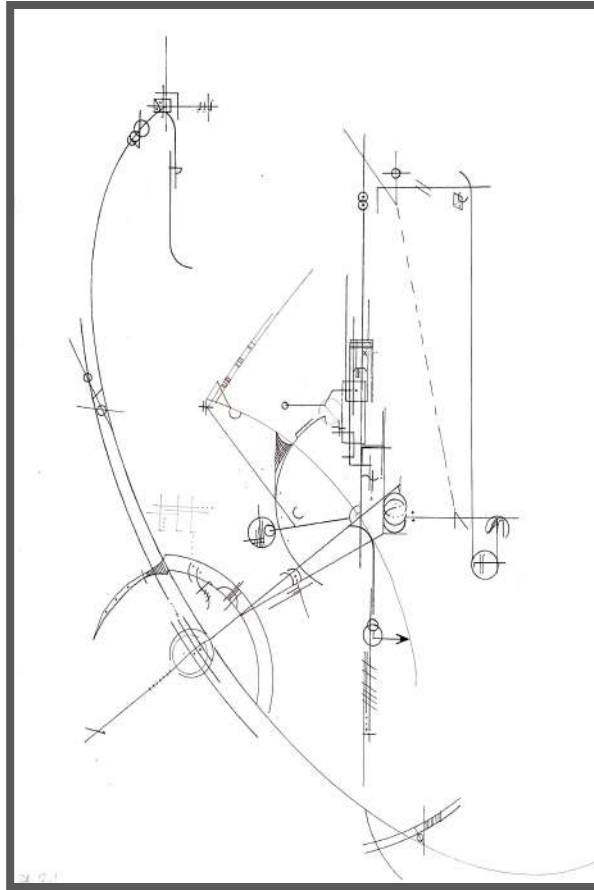
Prelude in “Monsoon season” - s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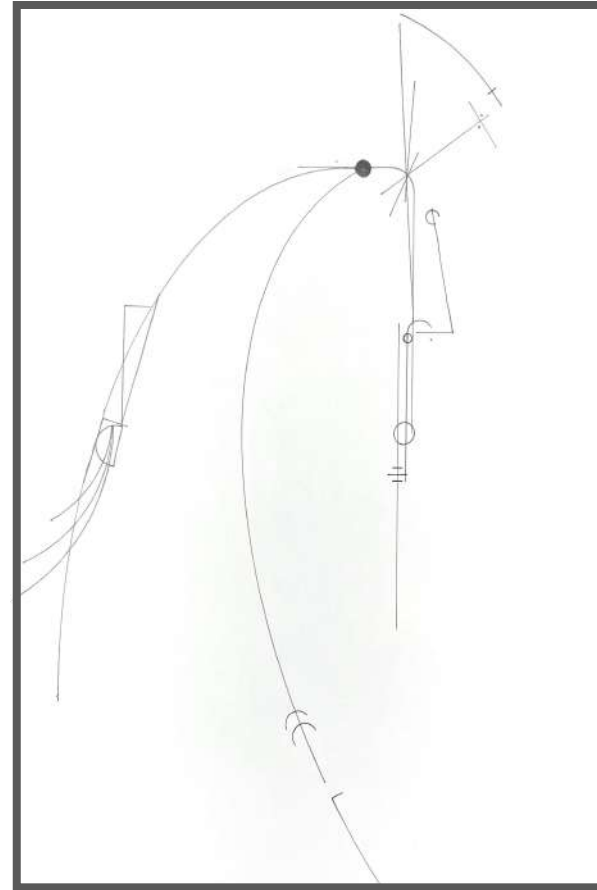
2024, 종이에 잉크젯, 29.7 x 4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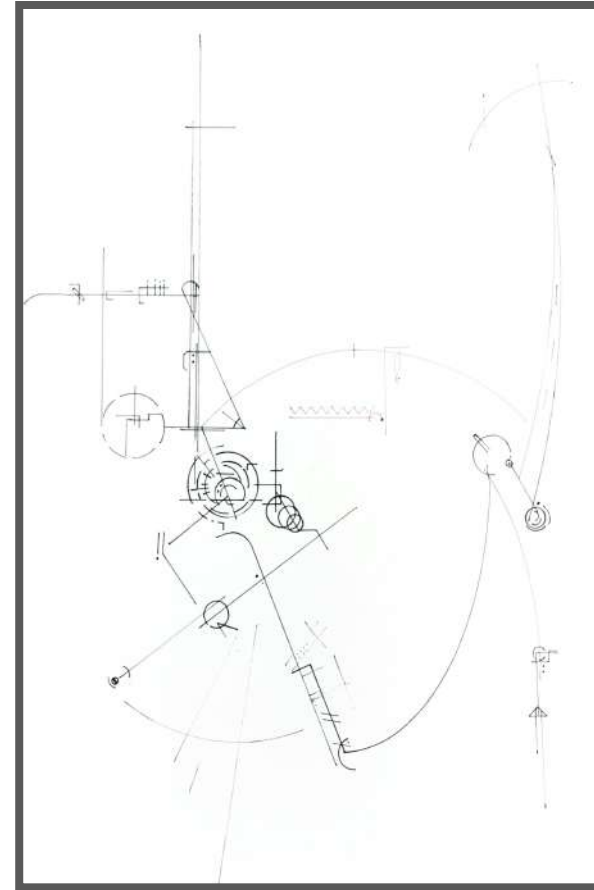
Score : 1, 2024, 종이에 펜, 21 x 29.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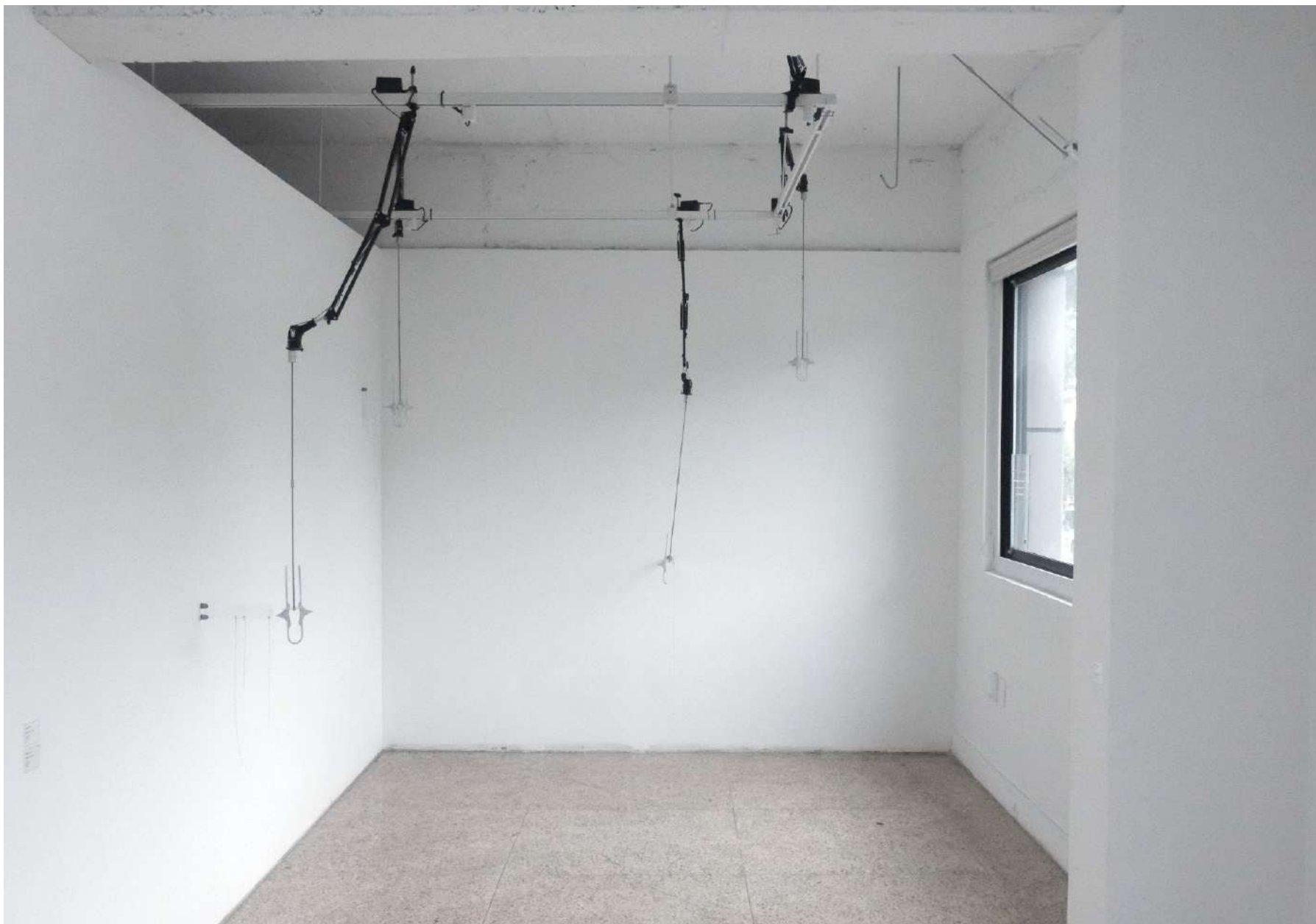
Score : 2, 2024, 종이에 펜, 21 x 29.7cm



Score : 3, 2024, 종이에 펜, 21 x 29.7cm



Score : 4, 2024, 종이에 펜, 21 x 29.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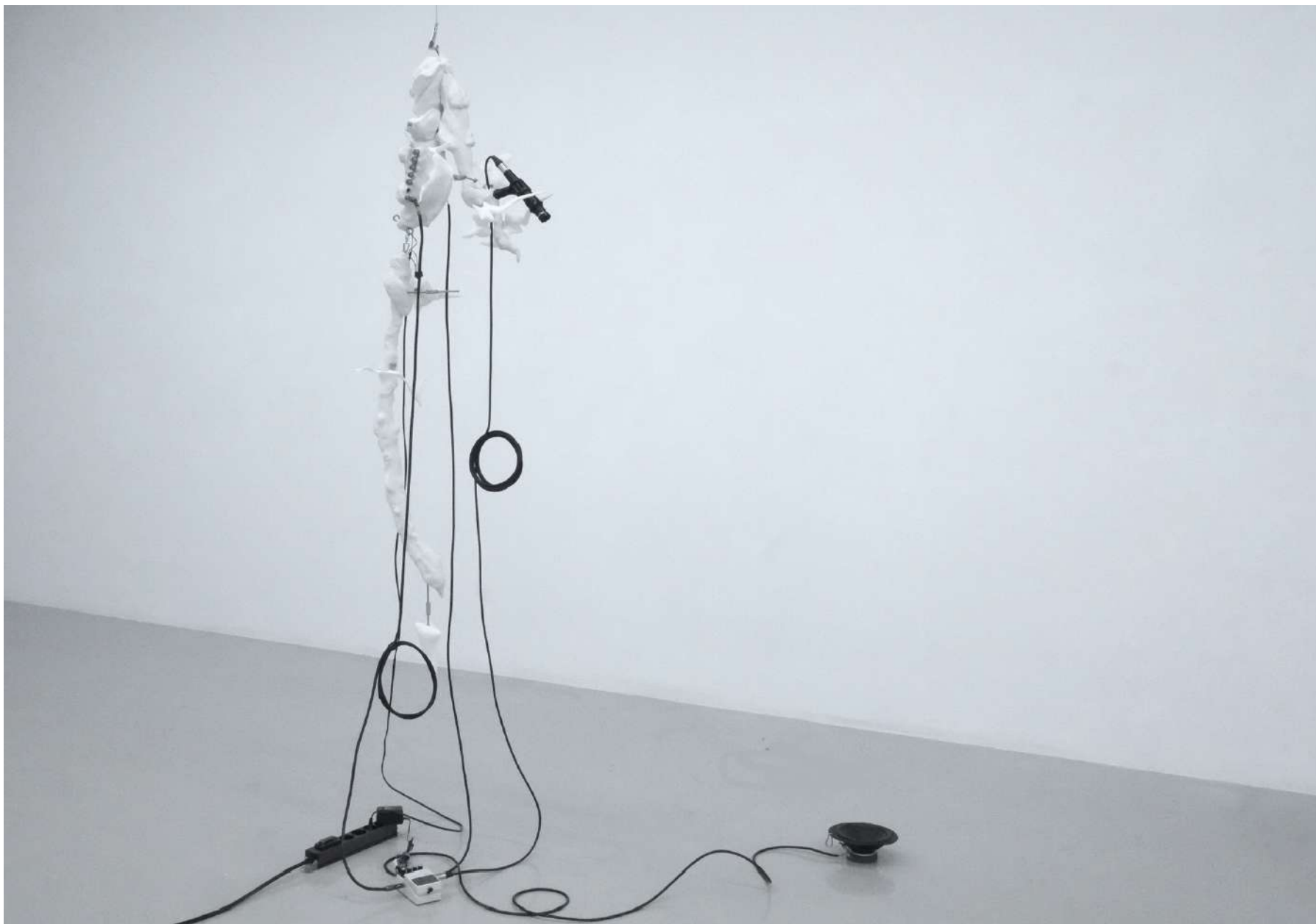


T • • ck

2024, 알루미늄 판넬, 전산볼트, 모터, PVC필름, 와이어 , 개당 13x13x120cm

소리가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에 있어, 공통된 시간을 각자의 속도,세기,높이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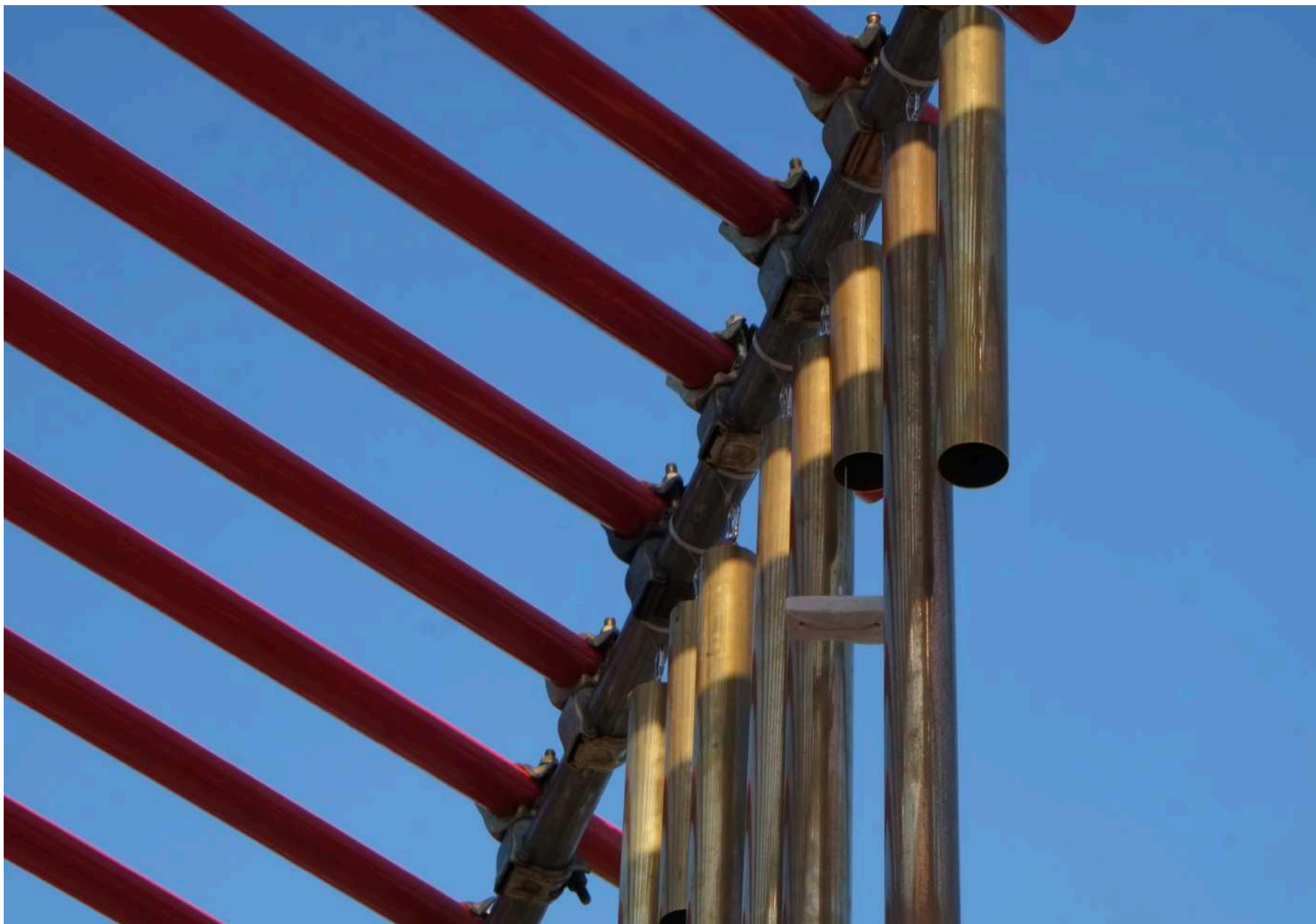


Ossicle - N : 1

2024 , 시바롤, 전산볼트, 볼트, 너트, PLA, 오디오 시스템, 41 x 52 x168cm

이소골은 인간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뼈 들 중 청각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자 동시에 독자적 기능을 한다는 점이 독립되어 존재하지만 상호보완의 관계를 가진 시스템처럼 여겨졌다,
주변의 소음을 모두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들어야 한다고 인지해야만 듣는다. 그 때 이소골은 인체의 기능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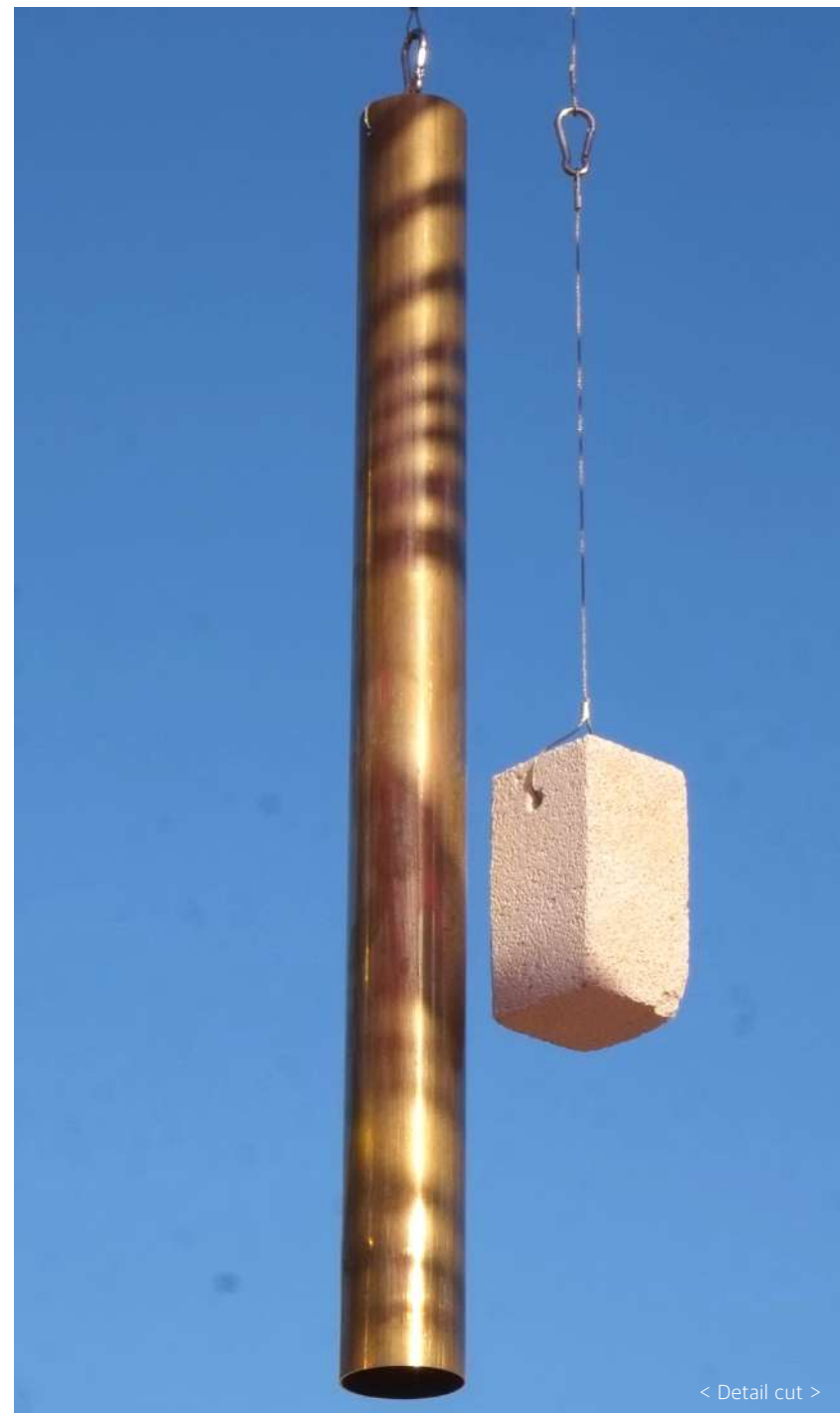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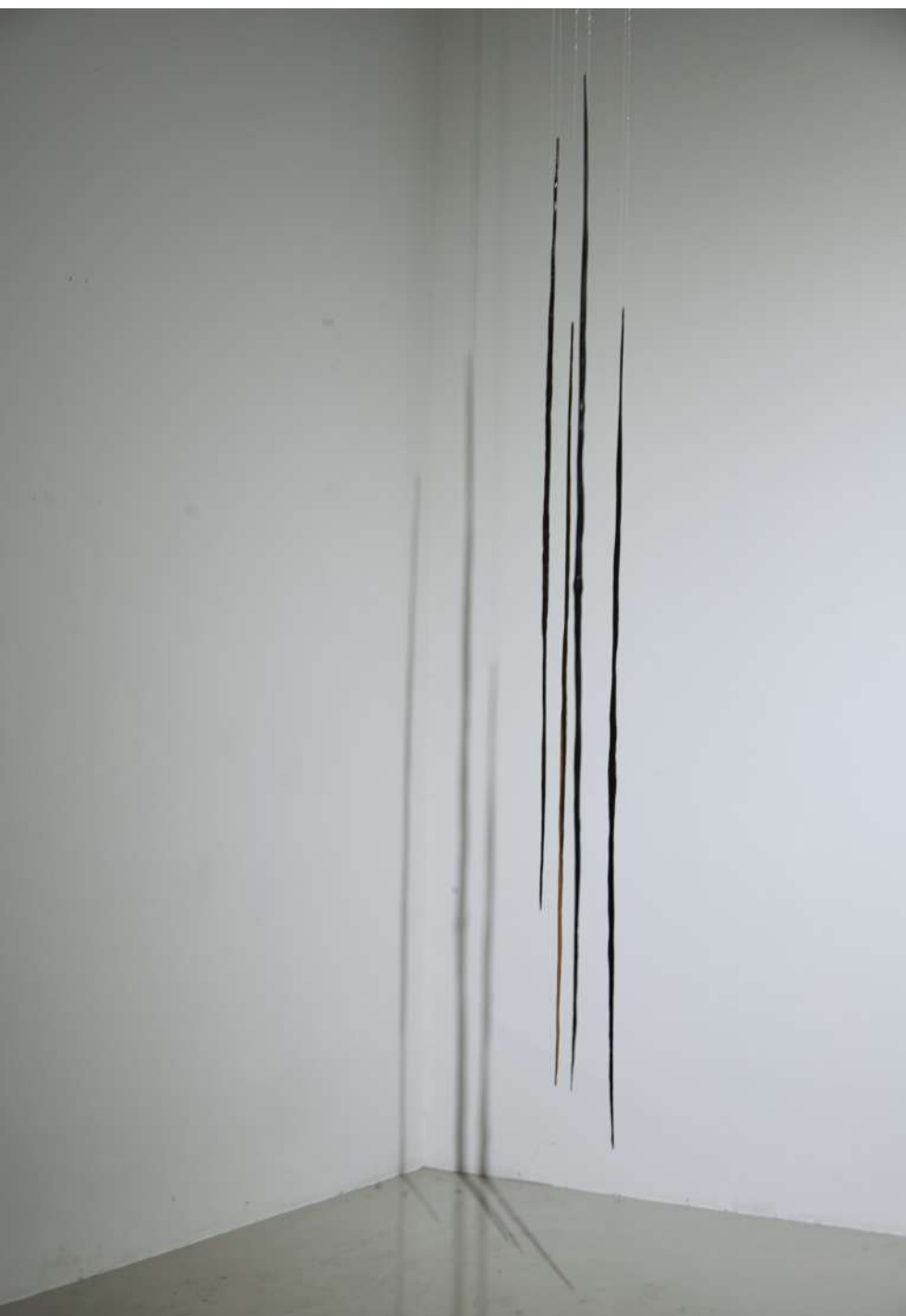
Sound scenery - wind, sea, wave

2024, 황동관, 대리석, 야외설치

강릉 경포해변에 설치한 언플러그드 형식의 설치 작업이다.
지역의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계절의 특성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바람이 많이 부는 1월의 바다엔 수많은 자연의 소리가 존재한다. 이 소리들은 다른 계절과 상반되어 차갑고, 냉정하다.
인간이 만들어낸 구조와 규칙들은 이러한 소리에 압도되어 존재한다.



< Detail cu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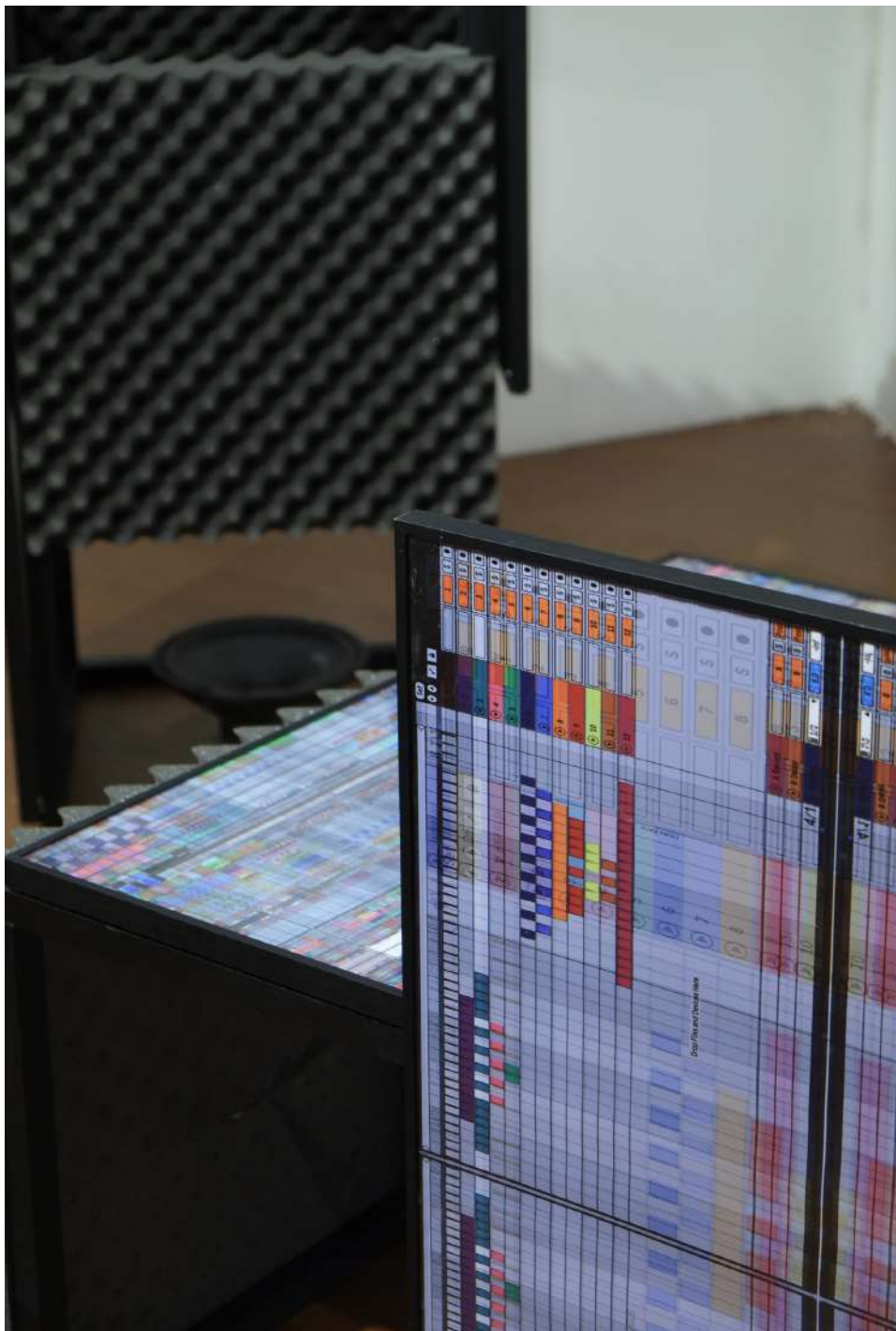


당신의 말이 세로 지를 때 2023, 에폭시 퍼티, 아크릴 물감, 가변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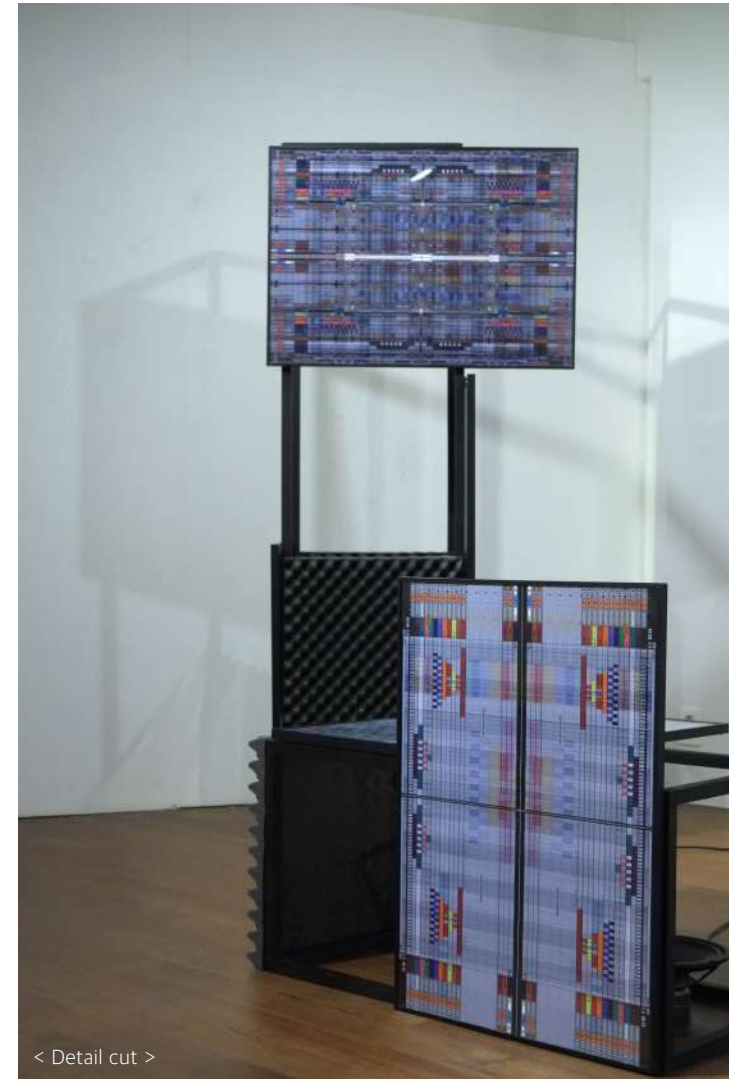


Sound scenery- Layerd

2023, A1 액자, 프레임, 오디오 시스템 50 x 50 x 200cm, 100 x 50 x 50cm, 가변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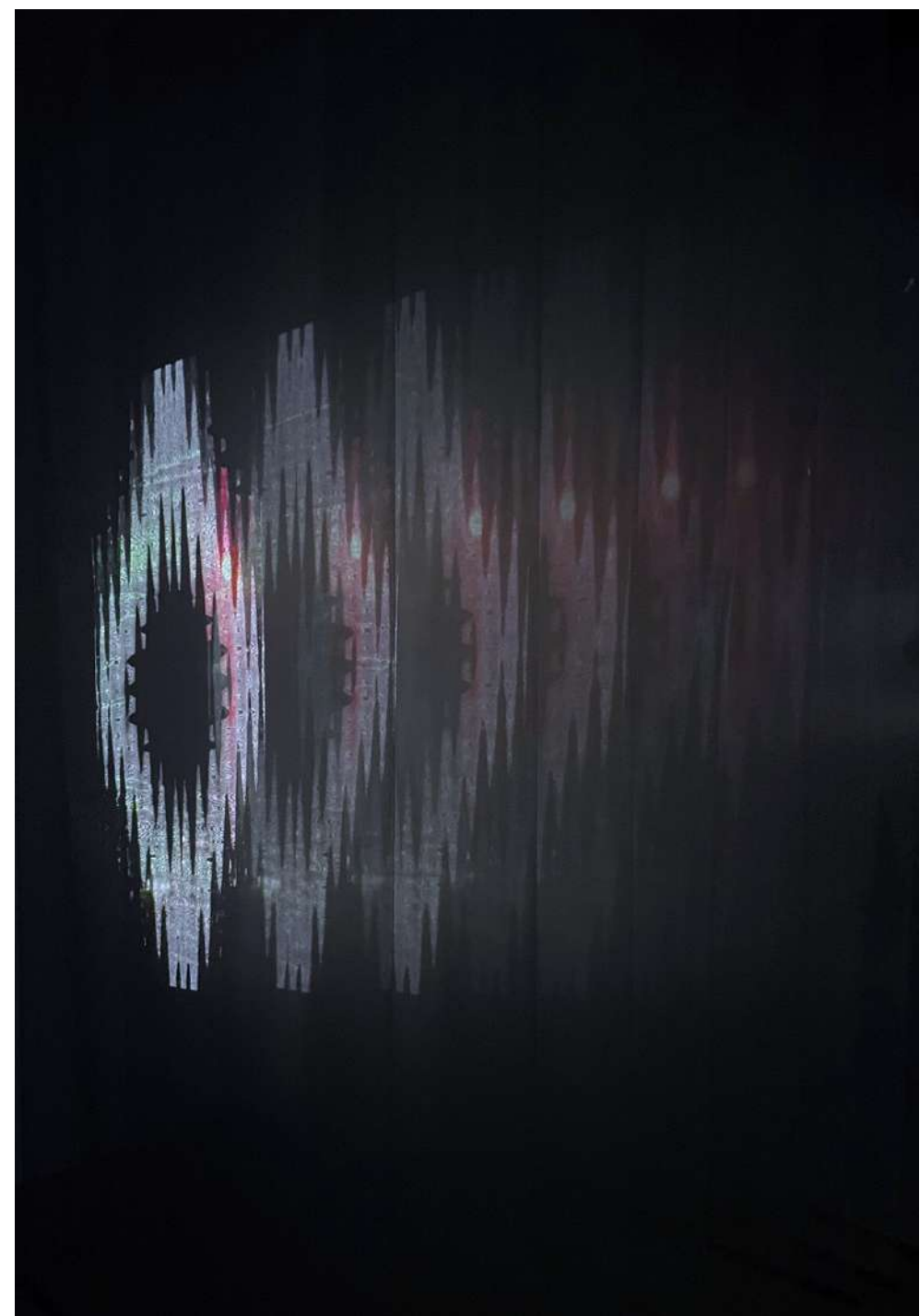


소리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이를 시간이라는 요소를 이용하여 중첩시키고, DAW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비주얼을 차용하여 시각화 한다.





Sound scenery - Energy Flow 2023, 원단, 싱글채널 비디오 , 110 x 180cm,가변설치, 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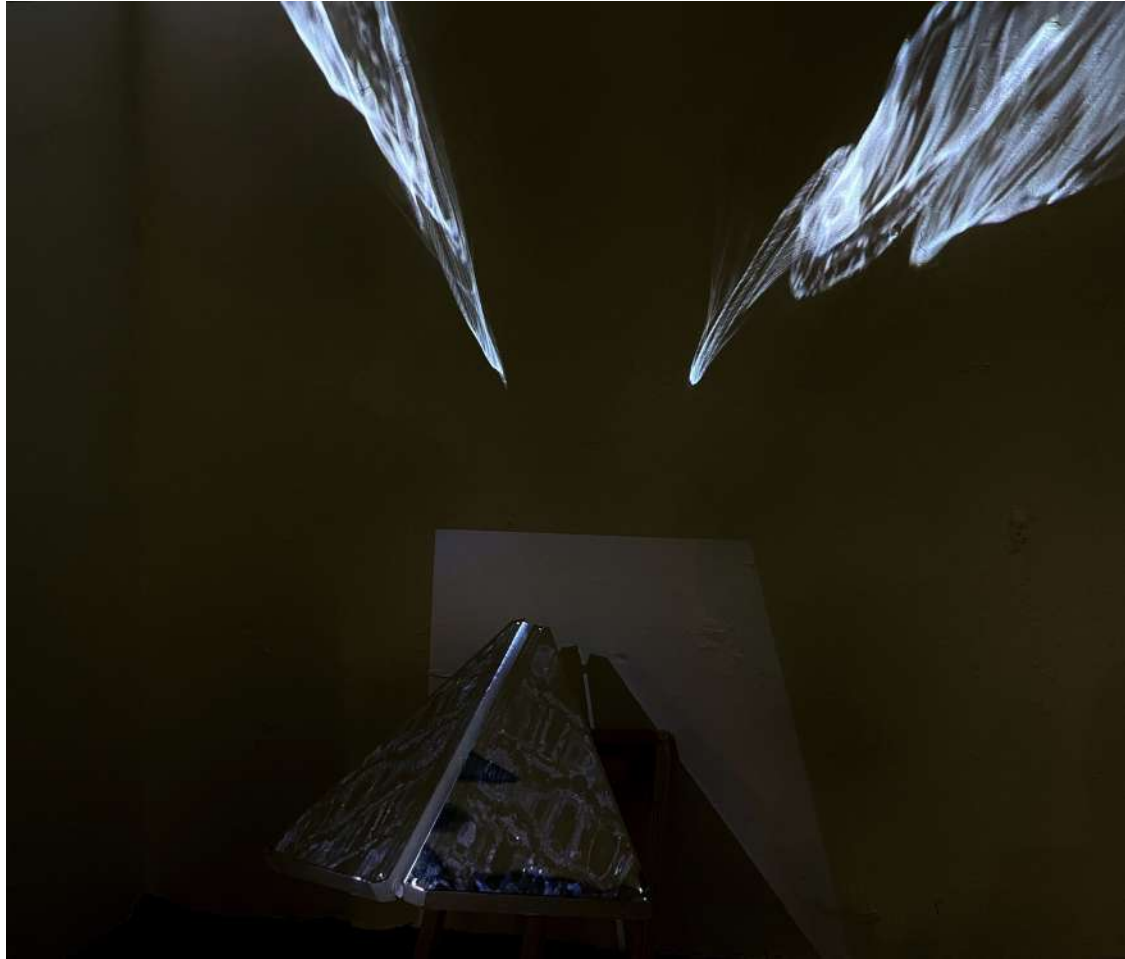


일상을 이루는 수많은 풍경엔 그만큼의 소리가 동반된다.
실 새 없이 마주하는 장면들은 시간이 흐르며 왜곡되고 흐려지지만, 때로는
선명해지기도 한다,



HALO - 선을 넘지 않는 점 에서 2023, 거울지, 프레임, 싱글 채널 비디오 35 x 30 x 50cm, 가변설치, 3 : 50

수많은 점이 모여 선을 만들듯, 수많은 소리가 공간의 벽에 맺힌다.





V.V.V

2022, 프레임 패널, 오디오 시스템, 5:30, 가변설치

2022년도의 기간에는 소리가 공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다.

공간에 존재하는 소리들은 볼 수 없지만 진동으로 존재한다.
이 가설은 소리를 미시적 영역에서 가시적 영역으로서 불러오는 공식이다.
이러한 공식을 기반으로 소리에 대한 수집을 진행하며 구조를 구성하는
재료로서 공간이나 건축적 요소로 사용되는 각목이나 합판 등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목재의 특징 중 하나인 소리의 진동을 흡수하고 증폭시킨다는 점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작업실에서 들었던 다양한 소리들을 녹음하고
재편집하여 각각의 음원을 제작하고, 음원의 스펙트럼값과 주파수를
차용하여 작품에 대입시키는 과정을 통해 공간을 구성하는 물질과 그
공간에서의 소리에 대한 연관성을 설명하려는 의도를 가진다.



V.V.V

2022, 프레임 판넬, 오디오 시스템, 5:30, 가변설치



Bundling

2022, 샤 원단, 프레임, 싱글채널 비디오, 5:30, 가변설치



Pillar of vibration

2022, 집성목, 프레임, 오디오 시스템 50 x 50 x 200cm



< Detail cut >

임동현(1999-)은 미술을 전공하며, 음악에 관심을 두고, 작곡 및 서울 이태원의 ‘project kiho’에서 레지던스 DJ(2018-2019)로 활동했다. 다양한 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경험은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아트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 예술이 가진 확장 가능성에 대한 흥미를 통해 청각 요소를 시각예술로 변환 시키는 작업들을 탐구한다. 예를 들어 이것은 풍경이나 사물과 같이 실재하고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모든 요소들을 중첩하여 청각적 인식으로 재편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작가는 실험을 통해 영상,설치, 조각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고 시청각의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